

GS칼텍스 창립 50주년

‘100년 기업’ 새 도약 나선다

1967년 첫 민간정유사 출발
국내 대표 에너지기업 성장
문화예술 지원·장학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GS칼텍스는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967년 국내 최초 민간정유사 출발한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22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허진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100년 기업과 최고 회사를 만든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함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 도약 =GS칼텍스는 지난 1967년 창립 이후 2년만인 1969년 6월 하루 6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여수 1공장 원유정제시설과 11월 인천운환유 공장을 완공했다.

GS칼텍스는 1968년 12억원의 매출로 시작해 지난 2016년 기준 무려 25조 7702억원 매출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창립 초기 하루 6만 배럴의 정제시설도 하루 79만 배럴로 13배 이상 확대됐으며, 지난해까지 여수공장에서 정제한 원유량만도 80억배럴 (200리터 드럼통 기준 560만km, 지구둘레 140바퀴)를 자랑한다.

특히 GS칼텍스는 지난 1981년 2차 석유파동 등으로 공장 가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유류

정제시설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을 통해 원유확보와 제품판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도 했다.

김기태 GS칼텍스 부사장은 “당시 임가공 수출 성공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단번에 석유제품 수출국가로 뒤바꿔 놓은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GS칼텍스는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1조원의 투자 실적도 기록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투자 성과로 지난 2000년 전체 매출액 기준 23% 정도의 수출 비중이 2006년 50%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71%에 달하는 등 국내 대표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대표 기업으로 우뚝 =GS칼텍스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사랑나눔에 앞장서면서 지역대표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국내 최초 아동 심리정서 예술치유 공헌활동인 ‘마

음독록’을 광주지급 순천지정 등과 함께 전남 동부지역 보호관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예술치유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GS칼텍스 장학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GS칼텍스가 지난 1996년부터 지역 중·고교 대학생 등 7900여명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지금까지 총 56억 8500만원에 달한다.

GS칼텍스는 또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GS칼텍스재단을 통해 마마산과 장도 일원에 1100억원 이상을 들여 여수문화예술공원인 GS칼텍스 예술마루를 조성·운영 중이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은 “지역대표 기업으로 소외이웃 지원과 장학·교육사업, 문화예술 지원, 환경보전 활동, 사회봉사단 활동 등 5개 영역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주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 투자하는 등 지역과 국내대표 기업으로서 국가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광양항 새 정부 공약 연계 단계적 투자·개발해야”

여수상의 활성화 포럼

국내 항만 물류의 핵심 동력기인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 공약과 연계한 단계적 투자와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남도·(사)한국항만경제학회와 함께 주최한 ‘2017 여수·광양항 활성화 포럼’을 지난 17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포럼은 세계 해운항만산업의 위기 속에서 새 정부의 여수·광양항 활성화 공약과 제4차산업 기술항만물류 분야 적용,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광양항 구축, 해운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 구축 등 3건의 주제와 전문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과 주철현 여수시장,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계각 (사)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 항만물류 관계자, 여수공단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국내 경제 약화와 내수·수출 부진은 물론 국내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공단 수출경쟁력 확보와 대체시장 개척 등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여수상공회의소와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했다.

제1주제발표에 나선 송계의 동서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제경쟁력 강화, 유통경기 회복 지원 등 세계해운항만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4차산업 기술을 항만물류 분야에 적용하면 연간 20% 미만의 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주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원은 2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 약화 원인을 파나마 운하 확대, 북극항로 상용화로 항로 변경, 선박 대형화로 항만 간 경쟁 심화로 꼽았다.

3주제 발표에 나선 우중균 동명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초대형 선박 입항 수역시설 정비 등 여수·광양항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설명했다.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수·광양항 물동량 하락과 국내외 경기침체로 국내 제 2위 항만 입지가 약화돼 이번 포럼으로 석유화학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규시장 개척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새정부가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공약으로 세운만큼 여수광양항의 재도약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웅천 이순신공원 장미 만발 여수시 웅천 이순신공원에 장미꽃이 만개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 제공>

창고형 할인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천 입점 백지화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

여수시 건축허가 불허

이마트의 대형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여수 웅천신도심 입점이 백지화됐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의 웅천 택지지구 내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 건축허가 민원을 불허했다.

이마트는 지난 3월 30일 웅천택지개발

지구 관공휴양상업 1단지 3블럭 1만237㎡에 전체면적 5만511㎡ 규모의 판매시설(이마트 트레이더스)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신청 대지 인근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을 들어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식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불허처분 과정에서 신청 대지 인근 이 정부의 거점형 마리아 항만 개발지구

로, 앞으로 숙박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설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어 창고형 할인점의 영업 특성상 인근 주민은 물론 타지역 이용자를 때문에 웅천지구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또 창고형 할인매장의 입점 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보다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해수청 바다의 날 기념 27일 ‘전국바다사생대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이 바다의 날 기념 ‘전국바다사생대전’을 개최한다.

여수해수청은 “제22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오는 27일 여수해양공원 일원에서 ‘전국바다사생대전’을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바다길을 밝히는 ‘등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바다사생대전은 만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수채화·유화·한국화 3부분으로 진행된다.

여수해수청은 사생대전 당일 현장심사를 통해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상과 여수

시장상을, 최우수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상과 여수시의회의장상 등을 수여한다.

정복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바다의 날을 기념한 전국바다사생대전에 많은 국민과 지역민이 참여해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하다!

-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사법부재판도, 진료, 강진, 재난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을 품은 위치
 - 해남고, 해남공업고, 해남중,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류, 의료, 미용, 학원, 업소학원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복합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성품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 두번대시 앞을 [新] 프리미엄 가치로

분양·임대 1577-1901

사행 11주 금상
사행 4주 진보종합건설(주)

※ 본 이야기는 4차산업의 미래를 담기 위한 제안입니다. ※ 본 이야기에 7대면 세입자격을 갖춘 개인·법인 및 사내주주의 참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무관한 고지.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전시장

2~5 794㎡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 743㎡ 전문병원원외 폐 폐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절상담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